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4>

선사가 몰라야 법에 맞는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노승이 오늘 밤은 대답해줄 것이다. 물어볼 사 람은 나오나라.”
어떤 승이 겨우 나가서 예배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오사이 나는 기어를 던져버리고 구슬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 아직 굵지도 않은 벽돌 한 개를 겨우 얻었을 뿐이군.”

師示衆云 老僧今夜答話去也 解問者出來 有僧纔出禮拜 師云 比來拋磚引玉 只得箇墜子

자고로 참된 선지식이라면 언제나 기어를 버리고 환하게 밝은 보배 구슬이 되라고 온갖 방편을 동원하는 것이 정상이다.

조주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자, 그대들을 깨닫 게 해주겠다. 나와서 물어라” 하고 낚시를 던져보 았다. 현상현하여 유혹을 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 인지 그것을 가려내 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겨 우 신참 하나가 나와서 무엇인가 물어보려고 예배를 하고 있으니 이것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나오라는 말에 유혹당 해 나온 애승이도 한심하지만, 아 예 나오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이다.

적어도 질문이 필요치 않는 ‘해 득한 자’라면 이러한 때 얼른 나 가서 옹의 머리를 잡아채 옹의 등을 타고 천하를 한번 횡행해보아야 하는데 그런 기상을 가진 자도 없고, 하릴없이 총림에 앉아서 나오는 반찬의 미 주나 살피고 해제 결제 숫자나 자랑하고 있다면 이 또한 불교를 망하게 하는 징조가 아니고 무엇 이겠는가.

조주 선사와 같이 자상하고 열렬한 선지식이 있 는 도량도 허물며 그러하네, 오늘날 시대를 잇고 신선처럼 살아가는 지위들이 다스리고 있는 도량 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도대체 조사 서쪽에 서 온 뜻이 무엇인가.

학승이 물었다.
“개(犬)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없다(無).”

학승이 물었다.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에 게는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는 업식성(業識性)이 있기 때문이다.”

問 狗子還有佛性也無 師云 無 學云 上至諸佛下至蠅子 皆有佛性 狗子爲什麼無 師云 爲伊有業識性在

업식(業識)은 전생부터 해오던 버릇을 말한다. 개는 전생부터 내려온 업식에 의해 동물적 본능을 발휘하고 산다. 청정한 본성보다 업식에 의한 습 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자기 본질 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러하니 불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선문답은 종문의 유명한 화두이다. 사실 조주 스님이 없다(無)고 한 뜻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선(禪)의 핵심을 간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구동성으로 그렇다고 동감하고 있는 바이다. 그래서 무(無)의 참 뜻은 종문의 화두이다.

도대체 조주 스님이 무(無)라고 한 참 뜻이 어디 에 있을까? 독자들은 틈틈이 한번 연구해 보기 바

라는 객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이름은 ‘비로자나불’이라고 했다. 일단 법신은 ‘법’ 그 자체가 나오는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법신(法身) 말고 또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는 법성(法性)이라고 한다.

보신은 중생이 간접하게 보고 싶을 때 나타나 응해주는 응보신이다. 응보신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다. 대표적인 이름은 ‘노사나불’이다. 화신 은 중생을 교화하는 스승의 역할이다. ‘석가모니 불’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삼신불은 3가지 다른 작용을 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이다. 그 뿌리에 대한 명칭은 본성(本性), 불성(佛性), 법성(法性), 각성(覺性), 자성(自性) 등의 이 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법신은 형체가 없고 만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보거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도(道) 그 자체이다. 삼신불에 대하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보신이나 화신정도이다. 법신은 아무리 알려해도 알기 불가능하다. 혹 어 쥬다 안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신을 안 것일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학인이 전혀 모를 때 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더욱 몰라.”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지(知)와 가 있 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목석이 아니야. 어찌 모르겠느냐?”
학승이 말했다.
“훌륭하신 모름이시군요.”
조주 스님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問 學人全不會時如何 師云 我更不會 云 和尚還知有也無 師云 我不是木頭 作麼不知 云 大好不會 師拈掌笑之

모르는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자고로 훌륭한 선사들은 다 몰랐다. 선사가 몰라야 법에 맞 는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여러 번 설한 뜻이 다. 다만 선사는 모든 것을 알면서 모른 상태이고 학인은 모르고 모른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두 사 람이 모른다는 것은 똑같다. 선사가 되면 결국 모 르게 되는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업식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깨달음 못얻어

모르는 것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선사가 되면 결국 모르게 되는 것이다

란다. 이 화두의 뜻은 너무 강렬해 사족도 다 녹아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견해는 달지 않았다.

학승이 물었다.
“법신(法身)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응신(應身)이야.”
학승이 말했다.
“저는 응신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다만 응신(應身)과 상관있을 뿐이야.”

問 如何是法身 師云 應身 學云 學人不問應身 師云 你但管應身

은 우주의 본바탕인 부처는 세 가지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 바로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 신(化身)이다. 법신은 법(法) 그 자체를 말하기 때 문에 형체가 없다.
불교는 우주의 생성과 파괴는 ‘법’이 하는 것이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15 임제록

선의 꽃을 피우다

<임제록>은 임제의현(?~867)의 언행록이다. 임제 라는 말은 당나라 때의 진주, 오늘날의 하북성 석가 장시(石家莊市)의 북부로서 호타하(滹沱河) 주변에 있었던 작은 선원의 명칭에서 유래한다. 의현은 당 말기의 전란에 즈음해 이 지역에 할거한 진주 왕(王) 씨의 귀의를 받아서 임제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법을 설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임제록>은 그 제자들이 정리한 것으로 설법과 응답을 수록했다.

임제의현의 전기는 몇 가지 자료가 있지만 <임제 록>에 수록돼 있는 행록(行錄) 부분이 그 중심이 된 다. 후에 임제종의 종조로 추앙돼 모든 전기가 그 종 조라는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됐지만 행록에는 무엇 보다 생생한 인간적인 의현의 모습이 기록돼 있다. 오늘날 널리 텍스트로 활 용되고 있는 것은 북송 말 기의 선화 2년(1120) 북주 고산의 원각종연(圓覺宗 演)이 증간한 것을 계승한 것이다. 증간(重刊)이라는 말은 그 이전의 판본이 있 었다는 말인데 그것이 곧 <사가어록>에 수록된 것 으로 원각종연 이후에는 초간본이 소실돼버렸다.

원각종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개편됐다. 1238년의 <속개고존속어요>를 비롯해 명대 초기에 개편 된 남경판 대장경의 <고존 속어록> 제4권 - 제5권 및 1630년에 출판된 <소가어 록> 제1권에 수록된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갖가 지 텍스트는 각 시대의 관 심을 반영한 것이지만 <임 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 는 원각종연본이 가장 도 움이 된다.

임제의현은 진주지방의 임제혜조(臨濟慧照)로서 선종사 가운데서도 걸출한 선자였다. 그의 일대기로 서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와 사상에서 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줬고, 가장 잘 전해준 선사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고 그 긍정을 모든 존재에게까지 적 용했으며, 자신의 본래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쉽 게 추구한 선자였다. 따라서 선은 달마를 통해 씨앗이 뿌러지고 해능을 통해 뿌리가 내렸으며 마초를 통해 줄기가 번창했고 임제를 통해서 꽃이 피었다.

임제의 기본적인 사상은 당대(唐代)에 형성되고 전개된 소위 조사선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곧 철저한 현실긍정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각을 통한 자유무애한 행위를 유감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이 것이 임제에게는 무위진인(無位真人)으로 드러나 있 다. 그 인(人)은 곧 주체적 인간이다. 현실에 주하면

서 현실을 단순한 관념의 세계가 아닌 적극적인 참 여자의 입장에서 진리를 구가해 출가 재가를 막론하 고 아무런 가식도 없이 정나라(淨裸裸) 적쇄쇄(赤漚漚)하게 보여주고 있다. 임적이 기성의 질서를 타파 하고 인간 본래의 가치를 주장해 온 임제의 언행은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대기대용(大機大用) 및 활(闢) 과 방(樞) 등이 임제선의 방편적인 특색이 돼 거기에 서 일종의 유형화(類型化)가 시작됐다.

임제의 인본사상은 개개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 신 뢰를 바탕으로 가능했으며, 그 사상과 자유롭고 활 달한 선기는 송대선의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가령 “뎌 몸뚱이러를 하고 있는 하나의 무위 진인이 항상 그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대들의 얼굴 로 출입하고 있다. 그런데 도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 자는 꼭바로 보라”고 말한 다. 임제의 가식을 떨구어 버리고 순수한 인간과 대 면하는 자신의 본래면목 을 한순간만이라도 지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것이 항상 우리 네 주위에서 늘 상 나타나 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 신의 내부에서 부정하고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신 략한 비판이다. 그리고 모 든 사람들이 본래성에 근 거하고 있으면서도 모두 가 본질을 벗어나 허망한 환상을 추구하는 소위 어 리석은 성인들에 대한 질 책이다. 임제가 즐겨 구사 한 활(闢)과 방(樞)은 바로 자신이 경험한 초심의 그 기분을 제시한 것이기도 했다. 황벽의 문하에서 세



임제의현(?~867)

차례 얻어맞은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이기도 하 고, 중생과 부처와 임제 자신이기도 하며, 불교 법과 승이기도 하고, 임제 자신이 내세운 삼구법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임제선법의 스타일은 굳이 가르마 를 탈 필요도 없다. 단지 몽땅 그렇게 살아가고 몽땅 그렇게 수행하며 몽땅 그렇게 깨치고 몽땅 그렇게 맛을 보여주면 되는 것으로 부분이 따로 없이 하나 의 전체일 뿐이다. 불법은 애써 힘쓸 필요가 없다. 다 만 평소애 아무런 탈도 없이 똥 싸고 오줌 누며(屎尿 送尿), 옷 입고 밥 먹으며(着衣喫飯), 피곤할 때는 잠 자면 그 뿐이다(困來即臥). 어리석은 사람은 밖을 향 해 공부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가 스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수처자주(隨處作 主)하고 임처개진(立處皆眞)하는 도리이다. 그래서 수처자주가 곧 그대로 임처개진이 된다. ■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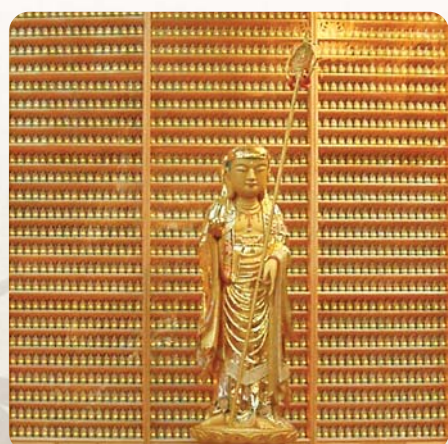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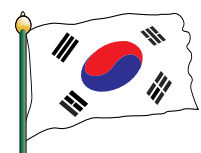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화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

-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C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